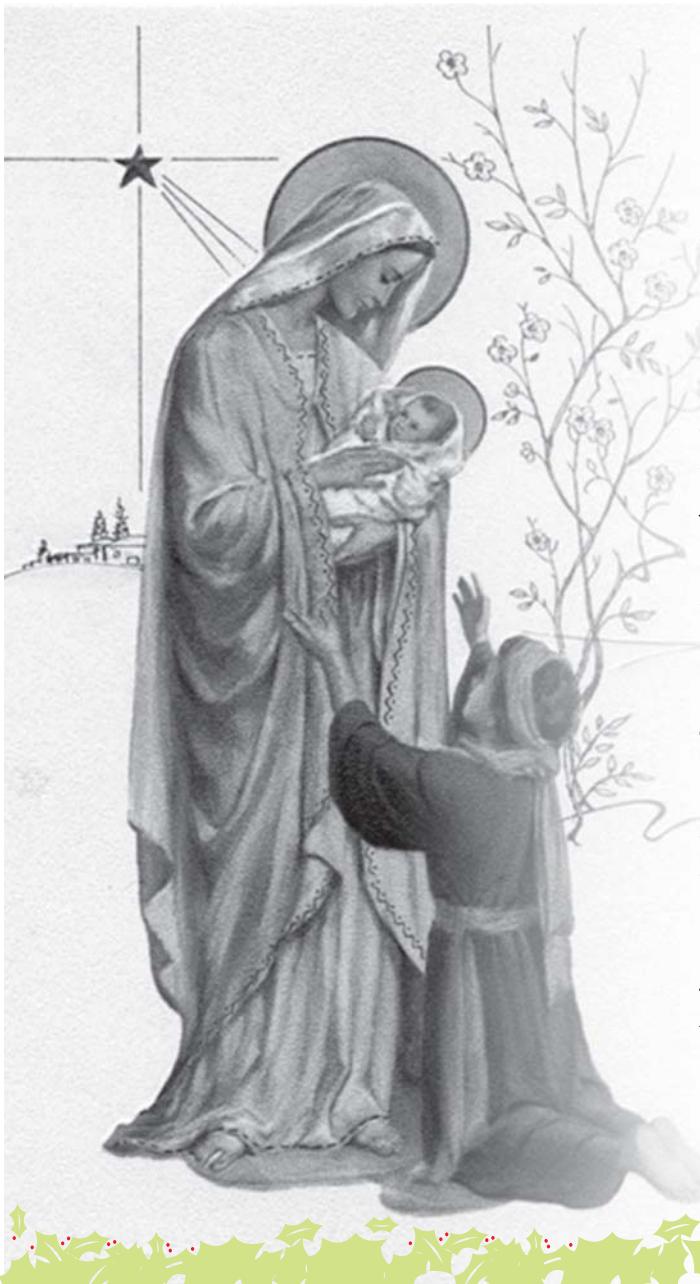




MEDUGORJE
평화의 모후

2017 제76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금년 한 해동안 주 예수님께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가톨릭교회 안의
선교 단체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비의 예수님 영성과 티 없으신 성모 신심이
널리 전파되도록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선교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드리며

2018 희망찬 새해를 맞아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장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오세완 바오로 신부 드림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메주고리예 성모님 빌현과 인준

메주고리예 교황 특사, 헨리크 호세르 주교

7 마음과 가정의 평화를 당부하시는 성모님
리비오 판자가 신부와 목격증인 마리야

11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12 모두가 내게 봉헌하기 바란다
스테파노 곱비신부

14 하느님 백성의 신앙고백
교황 바오로 6세

20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안토니오 마씨유 아빌라 신부

24 12월 22일 믿지않는 이들을 위한 성모님의 메시지

25 은총의 옷 스카플라와 지옥
마르셀 놀트 신부

32 꿈속에서 받은 장미꽃 다섯 송이
목용수 가브리엘

32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2018년 엠마오 길 피정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현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부모님의 안식과 형제자매들의 평안을 위하여…
 - ○○○의 성소를 지켜 주시어 거룩한 사제로 불러 주소서.
 - 성모님, 냉담증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아무도 기도해 주는 이 없는 불쌍한 연옥영혼들과 낙태아들과 부모들을 위하여…
 - 프란치스코 영혼의 안식과 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 ○○○의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의 사명과 거룩한 삶을 함께 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도미니카 자매님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조상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프리카 선교사명중에 주님 곁에 간 딸 데레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예수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레지나의 영적 건강을 보살펴 주소서
 - 미국에 살고 있는 불체자들을 도와주시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성모님, ○○○의 가정의 평화,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 Homeless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본당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안에서 거룩하게 보호해 주소서.
 -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를 보살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지켜 주소서
 - 냉담증인 딸과 사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교회안에서 성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소서.
 - 평화의 모후시여, 하느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사는 성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예수님이 며느리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태종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 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성지순례단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기도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성모님, 남편의 도박과 유혹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살펴 주시어 성가정으로 지켜 주소서.
 - 성모님, 그리스도의 수난 24시간 목상 고리기도 회원들의 기도지향을 봉헌하오니 기도해 주소서.
 -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손자의 대모 지니자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 주소서
 - 예수님이 루가낙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치유와 이 시련을 당신의 사랑으로 견딜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 인자하신 주님, 성모님의 지향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를 보살펴 주시고 은총중에 이끌어 주소서.
 - 예수님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목을 하시는 김베드로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원주민들을 보살펴 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지속적인 영적기도를 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 니다.
 -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이
- 2018년에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되어 지도신부님과 봉사자, 후원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소서.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매일 미사와 매월 첫 토요일 성모성심 미사, 매월 성모송 1000번 봉헌과 미사 및 성지순례때, 2018년 모든 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은 인준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 특사 폴란드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주고리예 특사로 지명한 폴란드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는 연례 교황 사절단으로 매년 250만 명의 순례자들의 방문하는 메주고리예의 사목 상황을 조사하고, "메주고리예,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는 "사목 활동과 그 열매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 발현에 관한 인준 가능성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인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관한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은 교황청이 임명한 대주교의 임무입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나고 있는 메주고리예를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 방문하셨고, 현재 교황청에 보고서를 준비 중에 계시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세르 대주교 : 메주고리예 성모 마리아 발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신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발현에 관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깊게 평가 할 수는 있지

만, 결코 완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매우 놀랍고 심오한 것들이기에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2주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메주고리예 밖에 위치한 사라예보와 로마 교황대사 루이지 폐치투 및 지역내 주교들을 만났고, 돌아오는 길에 비엔나에서 손본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르 대주교 : 성모님의 발현지들 파티마, 르르드, 리지외, 체스토초 등과 같은 성지들을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성지에서 느낄 수 없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놀라운 영적 신앙 성장의 장소이며,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위대한 창조 물입니다.

질문 : 영적으로 메주고리예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호세르 대주교 : 짧은 몇 단어로 설명하자면, 기도, 침묵, 집중, 성찬의 신비, 성체 현시, 단식, 고백성사입니다. 침

메주고리예는 놀라운 영적 신앙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목 안에서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체 현시 예절은 거룩합니다. 또한 성모님의 발현산에서 봉헌하는 교회 전통인 로사리오 묵주기도, 십자가산을 오르며 드리는 14처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자연경관 그 자체입니다. 인상적인 모습은 신자들이 힘한 발현 언덕에서 성모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산에 있는 돌들은 수 많은 신자들이 밟고 지나 간 자리가 많아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성당의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그 마을이 상업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매우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을 자제시키며, 메주고리예 마을이 순수한 마음의 순례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많아지면서 현지에 성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모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한 교회 생활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 순례자들에 대한 느낌은 어떻셨습니까?

호세르 대주교 : 내가 만난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다양한 세대와 연령대였으며, 특별 계층의 그룹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든 순례자들을 돋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 돌이 많고 힘한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전용 가마에 태워서 돋고 있었습니다.

질문 : 현지 교구 주교들이 발현을 부정하고 있는데 교황께서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을 인준할 수 있을까요?

호세르 대주교 : 초기경 산하 바티칸 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바티칸에서 파견된 조사 위원회에서도 들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 이후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현 이후 진행된 일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질문: 그동안 매주고리예와 관련된 성모님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호세르 대주교 : 우리는 몇 년간 예수님과 대화를 한 파



우스티나 성녀의 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민감하게 살펴보고, 정신적 질환 혹은 불안정한 면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메주고리예 목격 증인들은 세상의 저명한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이나 병적인 측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날까지 목격 증인들은 결혼하여 살고 있으며,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놀라운 영적 신앙 성장의 장소이며, 하느님이 역사하신 위대한 창조입니다. 성모님 발현 당시 10살이었던 막내 야콥출로는 메주고리예의 영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에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성모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카리타스 본당의 "마리아의 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예의 신앙적인 영성은 멈출 수 없고 절대 멈춰져서도 안됩니다.

질문 : 혹은 한때 발칸 반도 지역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원인이 교구와 프란체스코회와 갈등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호세르 대주교 :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이 본당을 교구 소속으로 포기해야 했을 때는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 세기 동안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스니아에는 지역 교구와 프란치스코회와 분쟁 중인 다섯 개의 본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주교들과 프란치스코회 사이에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대주교님께서 교황청에 제출할 보고서에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세르 대주교 : 나의 결론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황님은 파티마에서 돌아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메주고리예에 대해 말씀하셨고, 알바니아 시모니 추기경을 보내시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임무는 메주고리예를 닫는 것이 아니고 메주고리예의 영성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성직자 위치에서 볼 때, 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메주고리예에서 진행 중인 사목과 전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질문 : 대주교님께서는 개선될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호세르 대주교 : 인프라 구축, 법 관련 및 행정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이곳이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례 목적이외에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 대주교님의 교황청 보고가 있은 후, 현재 공지된 교회의 순례에 공문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호세르 대주교 : 누구든지 메주고리예 순례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주교가 공식적으로 참여 한 순례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명의 추기경과 수천 명의 사제들이 순례자들과 동행하는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교구나 본당에 의한 공식적인 순례를 할 수는 없지만 사제들은 신앙 안에서 결성된 단체과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메주고리예의 신앙적인 영성은 멈출 수 없고 절대 멈춰져서도 안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경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숨 쉬는 기도와 회개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질문 : 대주교님의 보고서는 성모님 발현의 인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호세르 대주교 : 제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직접적으로는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준될 것입니다. 또한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과 관련해서 주 사무국에 제출된 서류들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추기경 위원회가 발의한 첫 번째 발현들의 진위는 인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판결을 지금 인준 받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섯 명의 목격 중인이 36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어떤 방해나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발현에 관해 강력한 논쟁의 중심은 교회의 교리에 충실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

(<https://www.deon.pl/religia/kosciol...oser—odpowiada—na—zarzuty—dot—medjugorie.html>)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와 묵상

마음과 가정의 평화를 당부하시는 성모님

2017년 1월 25일 메시지 묵상과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와 리비오 신부의 전화 인터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모든 이들의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사탄은 매우 강력하며, 너희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돌아 서게 하고,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여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어린아이들아,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 근대주의와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여여다오. 나는 내 아들 예수님과 함께, 너희를 위한 중재 기도를 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7년 1월 25일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리비오 판자가 신부의 메시지 묵상

이번 메시지는 약 36년 동안의 메주고리예 마을에서의 성모님의 발현 사중 가장 강력한 의미를 담은 메시지들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발생할 때마다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1월 초, 사탄이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 말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한 천사, 사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두 세 번에 걸쳐서 상당히 심각한 메시지를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2000년 1월 1일 "묶었던 사탄이 사슬을 풀었다. 내 터없는 성심과 예수성심께 너희들을 봉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파티마 발현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 1월 25일 성모님의 말씀은 사탄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대적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각자 마음의 평화, 가정과 세상의 평화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메시지의 첫 부분은 미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충만한 빛이 느껴집니다. 일어나게 될 일, 즉 천상의 힘을 반대한 사탄의 격한 반격, 사탄의 파괴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이 평화입니다.

1981년 6월 25일 발현초기부터 이미 성모님께서 언급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 가정과 세상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느님과의 평화로써 사탄이 우리를 하느님과 대적하도록 끌고 갈 때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입니다. 다른 메시지들에서 사탄은 거짓이고 위선의 힘이며 진리 앞에서 어떤 거짓도 발붙일 수 없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사탄의 힘은

"사탄이 사슬을 풀었다. 내 티없는 성심과 예수성심께 너희들을 봉헌하라."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할 때 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거부할 때 사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힘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줄 때 그의 힘은 빙껍데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대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느님을 대적한 천사입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천사들이 하느님을 대적해 일어나기를 바라던 존재이고 결국은 미카엘 대천사와 그의 군대로 인해 쫓겨난 악의 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와 그의 군대는 겸손함으로 대적하는 천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묵시록 12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이 하느님을 반대해 일어나도록 유도하면서 인간이 하느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용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승리가 저 지평에 있지만 이 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성모님은 발현 35년 동안 처음으로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반대해 들고 일어나도록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전투의 반향이 생각납니다. 소수의 양떼만 남아서 영광에 싸인 그리스

도의 재림과 함께 전투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총체적 반항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반항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성모님께서 단 한번도 메시지에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든 이들이라는 표현은 총체적인 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느님을 대적하게 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가톨릭 교리서 중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 될 총체적 배교라 불리게 될 마지막 시대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당신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 전체가 하느님을 대항해 싸우도록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악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멀뚱하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악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통 가톨릭 국가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를 "현대주의와 이기주의"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를 빼차고 앉아 사라져 버릴 쓸데 없는 것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좋은 감정들을 제거하고 하느님을 향한 분노를 조장,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하느님을 대항한 중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 : 매우 강한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것들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평화라는 말은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현대주의를 도구삼아 하느님을 향한 감정들을 파괴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리비오 신부 :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 하느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느님과 믿



세상이 제공하는 세 가지 원수들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현대주의를 대항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싸워라"

음을 거부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전쟁입니다.

마리아 :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이지요. 영원불멸의 존재처럼 착각하고 똑똑해서 하느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평화가 부재할 때 인간은 비천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불안에 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평화를 누릴 때 모든 인류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시리아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신부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평화가 부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당부하시는 성모님, 수 많은 무질서로 인해 많은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하느님은 부재하시고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리비오 신부 : 이번 말씀에서 성모님께서 "모두"라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시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반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을 대적해 인류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사탄이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 저는 사람들이 소유가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 집중하고 개인의 안락함만을 위해 투자를 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기도하고 성화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현대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면 무조건 자신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등등 만을 추구하는 세태입니다. 심지어 착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악마들의 조건 좋은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요기 선생들, 이상한 명상가들 등등... 무서운 것은 철저한 무관심주의입니다. 오로지, 나, 나, 나만 존재하기 때문

에 하느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에서 성모님께서 이런 사탄의 속내를 공개하셨고 사탄의 이런 행태를 우리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어느 말씀보다도 중차대한 메시지로써 영적인 투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느님처럼 여기면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마적인 전염이 존재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를 전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추지도 말아야 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믿고 싸워야 합니다. 성모님의 말씀 중에 세상이 제공하는 세 가지 원수들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현대주의를 대항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싸워라"라는 두 단어를 합쳐놓으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성모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탄의 수단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동안 단 한번도 합쳐서 사용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 동의어도 아니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에 애착을 갖도록 만들고 한시적인 것으로 유혹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곳인 듯 착각하게 만들고 돈, 권력, 쾌락 등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고를 바꿔 놓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현대주의라는 말을 세 번에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한번 사용하셨는데 이는 많은 교황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 오셨던 것입니다. 비오 10세는 현대주의야 말로 모든 이단의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주의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히 배척해서 인간적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전락시킵니다. 신앙의 해이성은 교리영역에 상대주의가 파고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디오 마리아 청취자 중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날 복음이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날 주례 신부님께서는 강론 중에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기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복음은 단지 우리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

항상 매달 2일 메시지와 25일 메시지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 위한 말씀이었다고만 하더랍니다. 구마 예식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다가 구마예식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혹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시기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 대해 어떤 설교기들은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진 것이지 하느님의 손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주의는 하느님의 활동을 축소해 설명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구교 가톨릭 국가들이라는 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소리 소문 없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배교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하느님의 성전에 사탄의 연기가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현대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침묵의 배교', 베네딕또 16세는 '상대주의의 독재'라고 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현대주의에 대해 자주 고발하셨습니다. 이 기주의에 대해 하느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했다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주의는 '내가 하느님'입니다. 인간이 내가 최고봉이라며 하느님의 자리를 독식하면서 자신을 하느님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써 사탄은 현대주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통해 하느님께 전적인 반항을 하는 우리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현대주의를 대항에 싸우면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 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항상 매달 2일 메시지와 25일 메시지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메시지를 읽습니다. 우리 일상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한 달을 삽니다.

리비오 신부: 이런 상황을 우리보다 성모님이 더 잘 보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느님은 더 이상 첫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성화를 위한 결심을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재설정하면서 현대의 기류를 반대해 살라는 요구입니다.

마리아 : 맞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살레스는 교양있고 친절하며 훌륭한 분으로서 다른 성인들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성인전을 읽고 그분들을 닮으라 하십니다.

리비오 신부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의 명령형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여라! 싸워라! 결심하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느님다운 것들을 파괴하는 어둠의 왕국이 침투하는 현장에서 가만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지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리아 : 맞습니다. 싸우고 맞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아드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리비오 신부 : 얼마 전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지냈는데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리아 : 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발현 초기 당신이 만드신 기도회의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는 회개의 여정을 가면서 가정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고 회원들 상호 도와주기 시작했으며, 회개의 여정을 함께 가면서 참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성모님께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곁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돋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실어주는 친구들입니다. 제게 있어서 선종하신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은 참 좋은 친구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저희 발현 중인 꼬마들을 조사하고 발현 현상을 연구하도록 파견된 분이셨는데, 기도와 하느님안에서의 깊은 우정 속에서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졌고 거룩한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며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고해성사의 은총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과 성모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치고 고통 중에 있으며 병중에 신음하는 사람, 더 이상 못살겠다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 겹겹으로 짓누르는 문제들로 사는 재미가 없다는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이들 중 과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문제들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메주고리예 마을에서의 35년 성모님 발현 동안 마을 자체는 참 많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내밀한 경험을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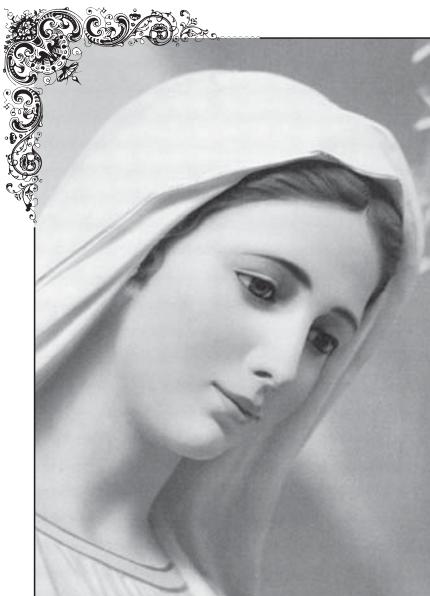
특별히 발현 언덕,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곳을 오를 때 혹은 한밤중 오를 때나 발현이 있을 때 산을 오르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초월적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메주고리예라는 마을은 성모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곳입니다. 메주고리예는 발현 언덕이고 메주고리예는 삽자가 산이며 성체성사이고 성체조배 등등입니다. 자갈밭위, 혹은 시멘트 바닥에 몇 시간씩 맨 무릎을 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런 모습을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자문자답하곤 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고해성사의 은총이 바뀝니다. 그 마을의 고해소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정이 넘어서도 누군가는 고해소 장례를 무릎을 끊고 고해 성사를 받는 모습들이 희미한 불빛에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씩 사제들이 메주고리예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해소에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사제들에게 있어서 고해소에서 성사를 주는 것만큼 큰 은총은 없을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강하시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견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사생활로, 영적생활을 지도해 주는 사제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예정을 걸으면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라고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

(발현증인 마리아는 '마니피캇' 기도와 영광송을 바친 뒤 리비오 신부 강복후 전화 인터뷰를 마쳤다. – 번역 남기옥 마르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들을 부른다.
기도하면서 평화를 구하여라. 어린 아이들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당신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 아들이며 너희들의 형제이신 그분께서는 나를 통하여 너희를 회개로 부르고 계시다. 그 이유는, 하느님 없이는 너희에게 미래도 영원한 생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희망하며 은총 속에서 살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7년 11월 25일 온세상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

모두가 내게 봉헌하기 바란다. 주님 탄생예고 대축일

287. 1984. 3. 25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나의 "예!"를 받아들이시려고 대천사 가브리엘을 파견하셨으니. 그가 내게 주님의 탄생을 '예고' 하는 그 혼연할 수 없도록 복된 순간을 묵상해 보아라.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그 위대한 신비를 묵상하노라면, 내가 '티 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라고 하는 까닭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봉헌은 1917년 파티마의 발현에서 내가 몸소 드러낸 원의이다. 내가 맡긴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아직 지상에 있는 내 딸 루시아 수녀에게 그 당시 여러 번 당부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수 년 동안에도 나의 '사제운동'에 맡긴 폐 시지를 통해 나는 끊임없이 봉헌을 요구해 왔다. 오늘은 모든 이에게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다시금 당부한다.

우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서도 맏아들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이를 요청하니, 그는 이 축일을 맞아 전 세계 주교들에게 그들 역시 자신과 일치하여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보낸 후,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주교가 이 권고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번 청한 대로 교황이 러시아를 공공연히 봉헌하기에는 그 특수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너희에게 벌써 말했듯이, 러시아의 봉헌은 머지 않아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 교황이 세계와 모든 나라를 티 없는 내 성심에 맡기고자 한 이 용감한 행동을 축복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약속한다. 바로 이 봉헌 때문에 전환기를 대폭 단축하고 막중한 환난의 무게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중재하겠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모든 주교와 사제들, 모든 수도

자와 신자들도 이 봉헌을 하도록 요청한다. 지금은 전교회가 반드시 티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모여들어야 할 때이다.

너희에게 봉헌을 요구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물건이 봉헌되어 축성을 받으면 오직 성스러운 용도로만 쓰일 뿐 그렇지 않은 사용은 금지된다. 그 것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만 쓰이도록 정해진 물건의 특성이다. 사람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봉헌 행위는 참으로 '세례'를 방불케 하는 행위 임을 알아 두어라.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 성사로 너희는 자신을 초월하는 생명의 질서,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 생명의 질서 안에 위치하는 은총을 입는다. 그렇게 너희는 신성에 참여하며, 하느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활동도 자연적 가치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정녕 신적 가치를 지닌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후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일체의 영광을 완전히 찬미할 사람들로 정해지고, 성부의 사랑 안에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서 성자를 본받으며 성령과의 충만한 친교 안에 살도록 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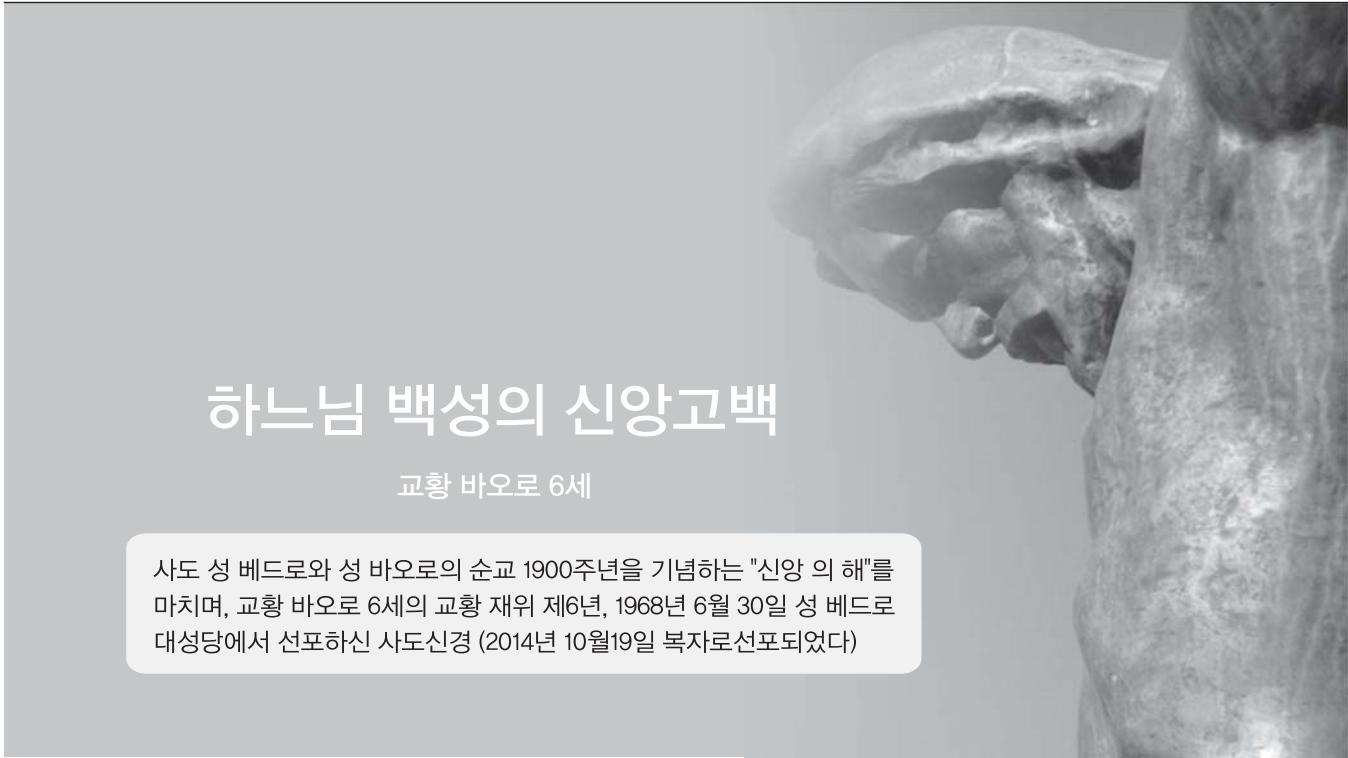
봉헌 행위의 특징은 그것의 전체성이다. 너희가 일단 자기를 봉헌하고 나면, 그것은 전적이고 영구적인 봉헌이 되는 것이다. 너희더러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가 너희를 하느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온전히, 즉 전적이고 항구적인 봉헌으로 내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너희가 알아들게 하기 위함이다. 내게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것은 내게 주고 다른 것은 자기에게 남겨 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어떤 날은 "예" 하고 다른 날은 "아니오" 한다든가, 너희 마음대로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봉헌이어서도 안된다.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 천상 엄마인 내게 너희가 온전히, 또 항구적으로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봉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느냐?

교회가 오늘 기념하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묵상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봉헌을 어떻게 삶에 옮겨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부의 '말씀'께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기셨다. 나의 "예!"를 받아들이시고 내 동정의 태중에 내려오셨다. 그분은 당신 신성을 지니신 채 내게 당신을 맡기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영원한 '말씀'이 '강생'하시어,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마련하신 작은 거처인 내 동정의 태중에 숨어 계셨다. 그분은 사람의 모든 아들들이 엄마에게 맡겨지는 심오한 방식으로 엄마에게서 일체를 기대하심으로써 당신 인성을 내게 맡기셨다. 다시 말해서 성장에 필요한 피와 살, 양분, 호흡, 사랑을 엄마의 태중에서 날마다 기다리셨고, 이후 – 탄생하신 후에는 어머니 곁에서 해마다 늘 그 모든 것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나는 '강생의 어머니' 임과 동시에 '구속의 어머니' 이기도 하다. 이 신묘한 강생이 구속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내 아들 예수님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고, 그분의 구원 사업에 협력해 왔다. 그분의 유

년기와 청년기 삼십 년에 걸친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에서부터 공생활기, 그리고 그 처참한 '수난'과 아울러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러했으며, 십자가 밑에서는 그분을 성부께 바쳐 드리고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과 비통에 젖은 마지막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그분은 온 인류에게 나를 참 '어머니'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직자'들이기에 모든 점에서 그분을 본받을 소명을 받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아, 예수께서 이 천상 엄마에게 온전히 의탁하셨다는 점에서도 너희는 그분을 본받아라. 봉헌으로 너희 자신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빈틈없이 세심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터이다. 하느님의 계획대로 너희를 기르면서 너희가 받은 소명인 '사제직'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삶 안에 이룩하게 하는데 관심을 쏟는 어머니 말이다. 그리하여 나날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모범이요, 가장 큰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그분의 진정한 도구, 그분 '구원' 사업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라. 이는 오늘날 너무나 병들어 있으며 하느님과 교회를 몹시 멀리하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제'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승리를 위해 그 도구가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내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교회가 본래의 광채를 회복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그 자녀들의 불충실과 배교 때문에 입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니 말이다. 내 '사제'들아, 너희를 통해 이 천상 엄마가 교회를 치유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희 마음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즉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에 너희가 온순하고 단순하게 자신을 맡겨 준다면, 곧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비탄에 잠긴 채 애원하다시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해다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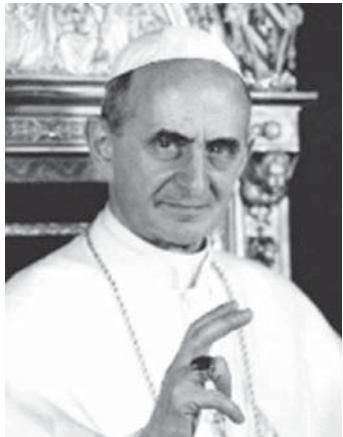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하느님 백성의 신앙고백

교황 바오로 6세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순교 190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의 해"를 마치며,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 재위 제6년, 1968년 6월 30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선포하신 사도신경 (2014년 10월 19일 복자로 선포되었다)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 장엄한 이 예식으로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순교 1900 주년을 경축하는 신앙의 해를 마치는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신앙의 유산을 손상없이 보존하려는 우리의 항구한 충성을 증

거하며, 현세 여성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대에 적응시켜 그 신앙을 생활화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견고케 할 목적으로 이 한해를 바쳐 거룩한 사도들을 기념한 것입니다.

2. 이제 나는, 나의 호소를 받아들여 각기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체득하고 단체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며, 참된 그리스도교 생활을 증거함으로써 신앙의 해라고 부른 이 한 해에 풍부한 결실을 맺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교직에 있는 형제들과 거룩한 보편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 공식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나의 사도적 축복을 보내는 바랍니다.

3.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당하지만 베드로의 후계자이기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하라 하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나의 미약함을 알지만 내게 내려진 이 명령에서 용기를 얻어, 신앙을 고백하며 '믿나이다'로 시작하는 신경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록 엄격한 의미의 신조 규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의 정신상태가 요청하는 설명을 가해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이야말로 하느님의 성교회가 간직한 불변의 전통입니다.

4.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에 관하여 현대인의 확신을 뒤흔들고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혁되고 있는 세계의 영향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진리가 부정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가톨릭 신도들까지도 변혁과 혁신의 욕망에 불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결실을 풍부히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높고 깊은 신비를 보다 깊이 파고 들며, 각 시대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하게 설명하려는 부단의 노력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탐구의 의무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름과 모든 사물과 창조된 모든 지성을 초월하십니다.

스도교 진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의혹을 일으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은 하느님께 받은 우리의 지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을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식의 대상은 주관적 표현인 구조나 인간 양심의 진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 해석이라 혹은 성경 주석이라 하는 것은 표현된 말씀을 보고 그 구절에 내포된 뜻을 알아내는 것이지, 멋대로 가정해 보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께 굳게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영혼이신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진리와 사랑과 신학적 신앙의 참된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내 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표준이 되는 훈령을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환경은 나에게 보다 장엄한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이 날을 택하여 신앙의 해를 마치며,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찬미하며, 살아 계신 하느님께 충성된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듯이, 그의 미약한 후계자로서, 또 온 교회의 목자로서 나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교회에 맡기신 천상 진리를 증거하며 선언하는 바랍니다. 나의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신도들과,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하였든지, 진리를 찾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비추어 줄 수 있는 완전하고도 명백한 신앙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도움을 바라며 교회의 이익과 영신적 진보를 염두에 두고 친애하는 형제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말과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바랍니다.

신앙 고백

8. 창조주: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같이 유형한 세계와, 천사라 부르는 순전한 영들같이 무형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불사불멸의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9. 하느님의 계시:

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본성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 섭리하심과, 그 뜻과 사랑과 같은 다른 완전성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계신 그분'이시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사랑'이십니다. '계심'과 '사랑', 이 두 가지 이름이야말로 가까이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름과 모든 사물과 창조된 모든 지성을 초월하십니다. 하느님 홀로 당신을 우리에게 바로 또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으므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계시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은혜로이 불러 주셨으니, 이승에서는 신앙의 어두움 속의 영생을 누리고, 저승에서는 영원한 빛속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각기 하나이시며 같으신 하느님 삼위를 이루는 상호관계가 바로 인간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깊고 거룩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도들이 우리와 함께 비록 성삼의 신비를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증거 할 수 있게 된 것을 선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0. 삼위일체:

그러므로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신 성부를 믿으며,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를 믿으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조차 나시는 영원한 사랑이시며 창조되지 않은 위격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함께 영원하시고 서로 같으신 하느님 삼위 안에, 온전히 한 분이신 하느님의 생명과 행복이

복되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의 영예를 간직하시고, 혈육을 취하신 말씀,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시며, 창조되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의 높으심과 영광이 지극하시니, 삼위의 한 하느님을 섬기며, 한 하느님의 삼위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11. 성자: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께서는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께 나신 영원한 말씀이시며,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으며, 신성으로는 성부와 같으시고, 인성으로는 성부만 못하시나, 그도 한 분이시되, 불가능한 본성의 혼합으로써 한 분이 아니시고, 오직 위격의 단일성으로 온전히 한 분이십니다.

12. 성자의 업적:

성자께서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천국을 전하시고 건설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행복을 가르치시어, 청빈의 정신을 가지고, 양순하며 고통을 인내로이 참아 받고 정의에 목말라하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하여 평화를 이루하며,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 하시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의 죄를 맡아 지시고 우리를 위



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며, 속량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묻히신 후에 당신 능력으로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당신 부활로 우리를 들어 높이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각자의 공로대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니,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보답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과 자비를 저버린 사람은 영원히 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13. 성령의 업적: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송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부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성령께서는 교회를 비추시고 살리시며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자녀들이 은총에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음 속 깊이 작용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사람은 힘을 얻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14. 성모의 품위:

복되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의 영예를 간직하시고, 혈육을 취하신 말씀,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성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되시어, 원죄의 아무런 어지러움에도 물들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셨으며, 받으신 은총에 있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훨씬 뛰어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5. 성모의 역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신비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신,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 성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치신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에 불리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자를 닮으시고, 모든

성사들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견고케 하십니다. 교회는 성사로써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케 하며, 성령의 은총으로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의인들의 행복을 제일 먼저 누리게 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둘째 하와로, 또 교회의 어머니로 믿으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하여 어머니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구원된 사람들 마음속에 천상 생명을 넣어 주시고 더해 주시는 데에 힘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16. 원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한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 본성이 원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믿으며, 이 상태는 일찍이 원조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추고 악과 죽음 없이 살던 그 상태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떨어진 인간 본성은 전에 가졌던 은총의 선물을 빼앗기고, 본성 자체의 힘마저 손상되어 죽음의 통치하에 예속되었으며, 이런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 내려오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원죄의 유전 : 그리므로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선언한 대로, 원죄는 '모방이 아닌 번식으로' 인간 본성과 함께 전달되며,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7. 죄를 씻는 세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원죄와 각 사람이 범한 모든 본 죄에서 구원하시어,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더욱 충만히 내렸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세례성사를 믿어 고백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세례성사를 주어야 할 것이니, 그들이 아직 본 죄로 어지러워질 수는 없다 하여도, 초자연적 은총 없이 태어났으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생명을 얻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19.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요, 교계적 조직을 갖춘 볼 수 있는 단체이며, 영신적 공동체입니다. 현세 여정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인 지상 교회는 천상 은혜를 풍부히 간직하고 있으며,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요 짹이며, 이로써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업적과 고통이 계속되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광 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 풍요하심에서 흘러나 오는 성사들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견고케 하십니다.

교회는 성사로써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케 하며, 성령의 은총으로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교회는 은총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품속에 죄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과연 은총의 생명을 잘 기르면 교회의 지체들도 거룩하게 되겠지만, 은총의 생명을 저버리면 마음의 죄와 무질서를 범하게 되며 교회의 거룩함은 빛을 잃게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교회는 고통을 받고 보속을 해야 하며,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혈과 성령의 은혜로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 교회의 사명: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정신적 후예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성서를 사랑으로 보호하며, 성조들과 예언자들을 열심히 섬기며, 사도들 기초 위에 세워짐으로써,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결합된 주교들이 사도들의 생생한 말씀과 목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세세에 충실히 보존하고 있으며, 마침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셨다가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진리를 성령의 항구한 보호로 보존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임무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서와 성전에 포함된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며, 교회가 장엄한 판정이나 세계적 통상 교도권으로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라고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의 목자와 스승으로서 교좌에서 말할 때나 또 주교들이 단체로 교황과 함께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누리고 있는 무류성(無謬性)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훌로 구원의 중재자이시요 길이시며, 당신 신비체인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2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세우신 교회가 신앙과 예배와 교계적 결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전례의 풍부한 다양성과 신학적 혹은 영신적 유산이나 지방적 규율의 정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것은 교회의 단일성을 해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단일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22. 교회 조직 밖의 형제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조직 밖에도 보편된 일치를 촉구하는 교회 고유의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됨을 인정하며,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같은 일치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작용을 믿으며, 유일한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신도들도 언젠가는 한번 한 목자 밑에 한 우리에 모일 것을 희망합니다.

23. 구원과 교회:

우리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훌로 구원의 중재자이시요 길이시며, 당신 신비체인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므로,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은총의 힘으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그 수는 하느님 훌로 아시겠지만, 그들도 보이지 않게나마 하느님의 백성에 속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미사성제:

신품성사로 권한을 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미사는, 우리 제단 위에서 성사적으로 재현되는 갈바리아의 참제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만찬에서 축성하신 빵과 포도주는, 그 뒤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봉헌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도 하늘에 영광스러이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

과 피로 변화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감각에는 축성하기 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느껴지지만, 그 물질의 형상 속에 참으로, 실제로, 본체로 주께서 신비로이 현존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25. 성체성사 안에 예수 현존하심:

그러므로 빵의 본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의 본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나, 우리가 보고 느끼는 빵과 포도주의 특성만은 남아 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 안에 현존하여 계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변화를 '본체의 변화'(transubstantiatio)라고 교회가 부르는 것은 고유한 표현이며 적당한 표현입니다. 가톨릭 신앙에 일치하며 어느 정도 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힘쓰는 온갖 신학적 설명은, 우리 이해력에 구애됨이 없이, 축성 후에는 이미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 빵과 포도주의 성사적 형상 속에 주 예수의 흡승하올 몸과 피가 실제로 우리 앞에 현존하신다는 객관적 현실만은 굳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양식으로 주시며 당신 신비체에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려 하신 주의 뜻입니다.

26. 성체 흡승의 이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단일 존재가 성체성사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체의 제사가 봉헌되는 이 세상 여러곳에 현존하시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신앙의 신비'이며 성체의 풍요하심입니다. 미사성제를 지낸 후에도 이 같은 존재가 우리 각 성당의 산 심장인 감실속 성체에 현존하여 머무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빵 속에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헬육을 취하신 말씀'을 기꺼이 공경하고 흡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현존하게 되셨다고 하여 천국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27. 하느님 나라:

또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로 하늘에 영광스러이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는 그 형태가 지나가 버리는 현세의 것이 아니므로, 인류의 문화나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이 천국이 발전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을 보다 깊이 깨닫고, 영원한 행복을 보다 항구히 바라고, 하느님의 사랑에 보다 열렬히 보답하며, 사람들 사이에 은총과 거룩함을 보다 널리 전파함으로써 천국이 확장된다고 우리는 믿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서 교회는 인류의 참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외적 행복도 도모하기로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품안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다고 언제나 권고하면서도, 또한 그들을 분발시켜 각자의 생활환경과 가능한 수단대로 자신의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와 형제적 화목을 촉진하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형제들에게 적당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교회와 현세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新婦)인 교회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고통과 노력 등 그들 필요에 응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은, 그들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고 결합시키려는 불타는 노력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심을 가졌다고 하여 교회가 스스로 현세에 동화하거나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킨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28.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아직 연옥불에서 속죄하고 있든지, 혹은 육신을 떠나자 곧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착한 우도와 같이 천상 낙원에 들어갔든지, 그들은 모두 죽은 뒤에 영원히 하느님의 백성이며, 이 영혼들이 자기 육신과 결합될 부활 날에 이 죽음이 온전히 정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9. 천상 교회:

천상 낙원에서 예수와 마리아 주위에 함께 모인 많은 영혼들이 천상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영원한 행복 중에 하느-

님을 본모습대로 뵈오며,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정도로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적 권한을 행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며, 형제적 관심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30. 모든 성인의 통공: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의 일치를 믿습니다. 즉 현세 여정에 있는 우리와, 세상을 하직한 후에 단련을 받고 있는 이들과, 천국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모두 다 한 교회에 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치로 말미암아 '구하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그 성인들의 고마운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멘. **M**

(각 번호는 번역본에는 없으나 원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회 장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 도 신 부 : 오세완 바오로 / Fr. John R McFadden

자 문 위 원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풀비오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흥연수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웹 관 리 자 : 이토마스, 남미카엘라

편 집 위 원 : 문로사리아, 정데레사, 남미카엘라

미국 |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캐나다 |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모 여자 관상수도회 수도자 피정 제3강의

카를로스 안토니오 마씨유 아빌라 신부



겟세마니의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갯세마니 동산에서 잠을 잔 사도들을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제 13권 1921년 11월 19일

의 내용을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13권 34장 1921년 11월 19일 :

겟세마니의 예수님

1 갯세마니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 가 할 수 있는 한 따뜻한 동정심을 표현하면서 그분을 가슴에 불안고 그 치명적인 식은땀을 애써 닦아내고 있었는데, 고통에 잠기신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려는 듯 쇠잔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딸아, 이 정원에서 겪은 고뇌는 여간 혹독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의 임종 고통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은 모든 것을 이루고 이긴 것인 반면, 여기 정원에서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고통은 원래 그 끝 무렵보다 시작될 때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3 그 가운데서도 가장 뼈아픈 고통의 순간은 모든 죄들이 차례차례 내 앞으로 오고 있을 때였다. 내 인성이 그 모든 죄의 극단적인 흉악성을 사무치도록 절감하고 있었으나, 각각

의 죄가 '하느님에게 죽음을!'이라는 각인을 지니고 있었고 저마다 칼로 무장한 채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것이었다." (천상의 책 13-34, 1~3)

지금의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겪으실 때에 무한한 이해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체험은 아주 한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알고 그 체험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한정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지식의 크기만큼 고통이 크게 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각각의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난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에 무한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실 수 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 하느님의 신성 앞에 있는 죄는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끔찍하게 보였던 것이다.



성모님의 눈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렇게 절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고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5 아버지께 울부짖었지만 그분은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도 거기에는 없었다. 큰 소리로 모든 피조물을 부르며 나를 측은히 여겨 달라고 외쳤으나 허탕이었다. 그러므로 내 인성은 기력이 쇠하여 마지막 치명타를 받아들일 판이었다.

6 그러나 누가 그 처형을 막아 내 인성을 죽음에서 지켜주었는지 알겠느냐? 우선은 내 엄마,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가 계셨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곁으로 날아오셔서 나를 지탱해 주신 것이다. 나는 그분께 내 오른팔을 기댔다. 거의 죽어 가면서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 안에 내 뜻의 무한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있었고, 나의 뜻과 그분의 뜻 사이에는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었다.

7 내 뜻은 생명이다. 아버지의 뜻이 확고부동해서 죽음이 피조물로부터 내게 닥쳐오고 있었지만, 내 뜻의 생명을 지닌 또 다른 피조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이 피조물이 내 엄마이시니, 내 뜻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임태하여 시간 속에 낳아 주신 그분께서 여기서도 내게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시어 구원 사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이다. (천상의 책 13-34, 4~7)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 영화는 성령의 감도를 여러모로 많이 받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다



른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어 가실 때에 성모님께서는 거기에 계셨고 성모님의 눈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십자가의 길 도중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만나셨던 일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성모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묵시록에 나오는 말 즉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힘을 얻으신 후에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시는 것이 아주 이상했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다른 군인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 부인은 저 나자렛 사람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만남에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완전한 흡송의 행위를 하셨다고 루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흡송 행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루이사에게 "어머니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와 동화시키셨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의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모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으로 녹여 넣으시고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흡송의 행위는 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이 해준 어떠한 도움이나 친절이나 여러 가지 행위보다도 더 많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章)에서는 성모님께서는 성모님 자신의 신적인 모성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의 각 순간마다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순간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의 말을 새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모성은 신적 모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창조 하실 때의 그 영원한 창조의 반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즉 아들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모성으로 이 영원한 창조를 반영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복음에서,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의 말을 새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적인 모성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되고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고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도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모님의 모성의 차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하루는 하느님 뜻을 행하지만 다른 날은 잠을 자든지 다른 것을 하는 우리와는 같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임태의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모님 안에서 계속해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장(章)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엄마 안에 내 뜻의 무한함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있었고 나의 뜻과 그분의 뜻 사이에는 갈라진 틈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젯세마니 동산에서도 그러하였고 당신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 마음 안에 우리 인간 하나하나와 각각의 죄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것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죽음과 고통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뜻 안에서 완전히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계속적으로 생

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로부터는 계속해서 죽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성모님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수난 중에 예수님을 지탱해주었던 한 사람의 지주(支柱)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 그런 다음 나는 내 왼쪽에 있는 '내 뜻의 작은 딸'을 보았다. 너를 선두로 내 뜻의 다른 딸들이 뒤를 잇고 있었다. (천상의 책 13-34,8)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탱해준 이 두 사람의 지주(支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족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서는 아론과 후르, 두 사람이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 주었습니다. (탈출 17,8-13 참조)

묵시록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증인과 주님의 모든 일을 받쳐주는 두 지주(支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다소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느님 뜻의 삶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성모님께서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느님 뜻의 작은 딸과 하느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쳐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느님 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느님 뜻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힘과 신성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나누어 받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 내가 바란 것은 내 엄마를 나와 함께 자비의 첫 고리가 되시게 하여 이를 통해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 오른팔을 그분께 기대고자 하였다.



그리고 너를 내 정의의 첫 고리로 삼아 모든 피조물이 받아 마땅한 정벌을 만류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윈팔을 너에게 기대고자 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정의의 팔을 떠받치고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10a 이 두 지주로 하여 나는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던 것처럼 끗끗한 걸음으로 내 원수들을 만나러 갔다. (천상의 책 13-34, 9~10a) 이것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 보내진 죽으실 때까지 당신의 수난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준 두 가지의 도움입니다. 그들은 성모님과 하느님 뜻의 다른 딸들과 함께하는 하느님 뜻의 작은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도 예수님을 받쳐드리는 예수님의 이런 형제자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수난을 당하실 그때에 모든 시간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살아 계셨고 예수님의 수난 때에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루이사는 1900년대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왼쪽에서 루이사를 보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당신의 인성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 때까지의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과거로부터, 또 현재로부터, 또 미래로부터 이런 모든 고통과 도움이 겟세마니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수난의 순간에 그분을 떠받치고, 그분께 사랑과 애정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그분과 여러분의 친밀함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날 밤에 그분을 받쳐 드린 그분 뜻의 다른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성모 관상회'의 수녀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본받아야 하고 성모님께서하신 것을 따라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통등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만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특별한 도움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날 밤 왜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는지 그것의 큰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교황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미 여러분이 읽은 이 장(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의 의지들을 영원하신 하느님 뜻 안으로 집어넣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도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

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또 다른 것은 피조물의 삶이 당신께 끊임없는 죽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신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생명은 성모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느님 뜻과 일치를 이를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께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성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M

(2013. 4. 29 예수의 성모 여자 관상수도회 수도자 피정 제3강의)
(www.qpmm.org에서 발췌 / 다음호에 계속 '하느님의 뜻' 2번이 연재됩니다.)

2017년 12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어머니, 의인들의 어머니, 사랑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의 어머니, 거룩한 이들의 어머니로서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오직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거룩한 이들은 천상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하며 그 모든 것에 앞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선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비록 너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거룩해 질 수 있단다.
너희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며, 교만함은 너희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위협이 가득하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내 사랑의 사도들아, 너희의 손은 기도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미 송이들, 목주의 기도를 나에게 바쳐다오.
내 장미는 입으로만 바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마음을 다하는 기도이다.
내 장미는 너희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아들이 어리실적에, 수 많은 자녀들이 나에게 장미송이들을 봉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내 아들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불쌍한 이들을 도울 때, 그것이 곧 나에게 바치는 장미송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이 내 장미송이들이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용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며, 이해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자녀들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 사랑이신 내 아들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 하여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명심하여다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란다. 고맙다."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 웹사이트에서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매월 메시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은총의 옷 스카플라와 지옥

다음은 1992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개최되었던 파티마 평화 회의에서 마르셀 놀트 신부가 가톨릭 주교들에게 한 강론이다. 이 강론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주교들이 마르셀 놀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했다고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옥의 실재에 대한 가르침은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들 중의 한 분이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자주 설교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참되고 강력하며 수 많은 회개를 끌어냅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로마에서 "너는 네 영혼을 잃고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로마를 떠나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이교도의 도시 로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피해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쳤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의 성덕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네딕도 성인의 모범과 충고를 듣고 따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기회를 끊어버렸고 거룩하게 꽂피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끌어 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왜 자신의 생활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비참한 실재성에 대해 자주 강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톨릭의 교의 중의 하나이지만 이제 사제들과 주교님들은 더 이상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오 9세 교황님은 교황의 무류지권과 원죄없으신 임태교의를 선포하였고 현대 세계의 오류와 이단을 단죄하면서 유명한 교서를 반포하였으며, 설교자들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말(四末) 특히 지옥에 대해 자주 강론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대한 생각이 성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다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였고 죄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퐁소 리고리오, 성 요한 비안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모두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가르멜회의 총장 성 시몬스톡은 수사들이 지옥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수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의복을 주겠다. 이 의복을 입고 죽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사들은 단식을 하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위험스러운 세상을 끊어버리고 은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251년 가르멜산 성모님은 영국의 예일스포드에서 시몬스톡 성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의복을 주겠다. 이 의복을 입고 죽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색 스카풀라를 사제복 안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 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옥이나 스카풀라에 대해 강론해 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도미니코회 사제인 복자 알라노 드로쉬에게 "나는 묵주와 스카풀라를 통해 세상을 구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전문가일 수 없으며 또 모든 것에 대해 강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 자주 강론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올 주교님들, 언제나 나의 장상은 내가 너무 지옥에 대해 강론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셀 신부, 당신은 사람들에게 너무 겁을 주고 있어요. 나는 지옥에 대해 강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 강론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게는 위신이 있소.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지옥에 대해 강론하지 않을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주교님,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강론하시는군요. 지옥에 대한 가톨릭 교의를 말하지 않는 것은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예언자를 보내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와서 거룩해지도록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강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하여 자기 독소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서 이단을 없애라고 예언자의 모후이신 사랑하올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교부들은 말하기를 천주의 모친은 이단을 부수는 망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그 메시지가 복음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아주 비장하고 깊은 메시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파티마의 교훈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주소서."

파티마 메시지의 요약은 "지옥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죄 중에 죽는다면 우리도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두 가지 거룩한 준성사, 묵주기도와 스카풀라를 통하여 구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대한 신심과 첫토요일 신심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1916년 5월 포르투갈 카베코에서 포르투갈의 수호천사가 처음으로 발현하여 세 어린 목동에게 하느님께 흡승을 드리는 두 가지 기도문을 알려 주었습니다. 천사는 이 기도를 땅에 엎드려 바쳤습니다. 파티마의 천사는 세 어린이에게 기도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바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느님을 먼저 흡승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첫 번째이고 피조물은 두 번째입니다.

파티마의 천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무릎을 끓고 흡승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알

나는 묵주기도와 스카플라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겠다.'

면 알수록 더욱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낫추게 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주교 보쑤에는 "사람은 무릎을 꿇었을 때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창조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참으로 위대합니다. 파티마의 천사는 세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첫째 계명을 따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 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는 카베코에서 세 번째로 발현하였을 때 왼손에 성작과 오른 손에 성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천사는 신비스럽게도 공중에 들려있는 성작과 성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삼위일체를 흠숭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신을 흠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흠숭을 드릴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서와 파티마의 천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가톨릭 교회의 재강화

1917년 5월 13일 세 어린이들은 성모님의 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성모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가



톨릭 교의를 잘 나타 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하고 묻자 성모님은 "그래,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죽은 두 친구도 천국에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모님은 한 친구는 천국에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다른 한 친구는 어디 있나요? 천국에 있을까요?"하고 물어보자 성모님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죽을 당시 그 소녀의 나이는 18세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교의, 즉 연옥은 존재하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친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파티마의 천사는 세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을 흠숭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어느 위격 중 하나라도 흠숭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인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를 다함께 흠숭해야만 합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지옥의 환시

1917년 7월 13일 금요일에 성모님은 다시 발현하셔서 세 목격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미소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웃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날 성모님은 세 어린이들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려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당신 손을 펼치시자 세 어린이들은 갑자기 땅 속의 어떤 큰 구멍을 보았습니다. 루시아가 말한 그 큰 구멍은 불바다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간의 형상을 가진 흑색 또는 청동색의 숯덩이와 같은 영혼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불에 타며 솟구치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마들은 흉칙하고 알 수 없는 동물 같이 보였다고 루시아는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사로 잡혔습니다. 루시아는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무서웠습니다. 성모님은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가톨릭 교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하다

성모님은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매단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벼롭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지존하신 분의 예언자로서 오셨습니다.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이신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은 이웃에 대한 애덕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고 자주 강론하였습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에 따른 애덕의 두 번째 행위는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의 작은 성당에서(지금도 성인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은 채 모셔져 있다) 악마에게 사로 잡힌 사람이 요한 비안네 성인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를 증오한다. 너는 내 손에서 8만 5천 명의 영혼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너를 증오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존경하올 주교님과 신부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받게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제, 주교, 교황으로 부르신 그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7만 5천 명 이상의 이단자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부들, 교회학자들, 성인들의 글을 읽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과 사말(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전파하였다는 이 한 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대한 가톨릭 교의를 전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주 받은 자의 거처에 대해 묵상을 할 때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써 우리는 죄의 기회를 피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얻기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교님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30년간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 주교님이나 다른 주교님들이 지옥에 대한 가톨릭 교의를 강론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사는 나라나 혹은 그밖의 다른 곳에서 지옥에 대한 강론을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옥에 대한 강론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낮에 대성당 안에서 나는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주교님은 매일 밤 방송되는 어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묵주기도에 대한 좋은 묵상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묵주기도 매단마다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를 왜 바치며, 왜 잠시나마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17년 7월 13일, 세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준 후 파티마 성모님이 요청하신 묵주기도마다 이 짧은 구원경을 왜 바치지 않는지 주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교님은 저에게 "그래요,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 자체가 그들을 겁나게 하거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지옥 불에서 구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주교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주교님들이 묵주기도를 바치기는 하지만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경은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1917년 7월 13일, 성모님이 세 어린이들에게 주신 이 짧은 기도문은 주교님들이 마련해준 어떤 묵상 재료보다 더욱 힘차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 지옥에 대한 강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지옥

에 대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혼들의 삶에서 여러가지 많은 계시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어떤 영혼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우리가 지옥에 천년 동안이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떠날 날을 알기만 한다면 백만년이라도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 불이나 하느님을 벅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만합니다. 성체 앞에서 지옥에 대한 가톨릭 교의를 심각하게 묵상하십시오. 존경하올 주교님들,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그 비통한 실재성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체를 강론하셔야만 합니다.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이단적 개념

나는 약 3천 명의 신자들과 백 명의 사제들이 모인 어느 성령 기도회에서 한 사제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모든 영혼들과 악령들까지도 구원할 세상 종말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제는 계속 강론하였고 그의 주교는 이단을 전파하는 그 사제의 권한을 중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지옥 불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불, 그것은 일시적인 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정된 인간지성은 철학적 문제를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린 베드로를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죄 중에 죽는다면 우리도 거기 가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

왜 모두들 천국에 대한 보증인 묵주기도 (묵주 기도 신심은 구원 예정의 확실한 표시), 갈색 스카풀라(훌륭한 참회의 성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중에 죽는다면 절망속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백만 년만이 아니라 10 억 년이나 100억 년, 몇 억조 년 이상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 생애 중에 대죄를 한 번이라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그 한 가지 대죄를 뉘우치고 용서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충분히 내던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 강론가들의 수호자인 가장 위대했던 교부들 중의 한 분인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몇몇 주교들은 구원되었지만 많은 사제들이 단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리스본에서 파티마로 오면서



버스 안에서 평신도와 사제들, 그리고 주교님들에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파티마에 가서 왜 훌륭하고 거룩한 총고백을 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되도록이면 총고백을 하도록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마 10년 전, 50년 전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떠나기 전에 이 파티마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고백을 하십시오. 파티마에는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시는 보지 못할 많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강론하는 것처럼 주교님들에게 강론합니다. 주교님들도 영혼들을 구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교님들이 진실로 겪혀하다면 평범한 보통 사제로부터 그 진리를 받아들 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총고백을 하지 않고 파티마를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애덕의 위대한 행위

존경하올 주교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제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수백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제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

며 천주 성부께 미사성제를 바치기 위한 이 한 가지 이유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나, 또는 파티마의 세 목격자들과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개인적 계시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천국에 간다고 확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들 천국에 대한 보증인 묵주기도 (묵주 기도 신심은 구원 예정의 확실한 표시), 갈색 스카풀라(훌륭한 참회의 성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올 주교님들, 교부들처럼 강론하십시오. 주교의 첫째 의무는 교구

를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강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부들처럼 존경하는 주교님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주교님이 파티마를 방문한 후 자기 교구로 돌아가 기회만 생기면 파티마의 메시지와 더불어 사말에 대해 강론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얼마나 큰 애덕의 행위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의 주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오늘 내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묵상하십시오. 내 교구의 사랑하올 사제들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교를 본받아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옥에 대해 강론하십시오." 1년에 한번은 적어도 지옥에 대해 전적인 강론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사제직, 여러분의 주교직에서 가장 위대한 애덕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30년간 사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이 지옥에 대해 강론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대한 강론을 하고 싶을 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부들, 교회 학자들, 시성된 강론가들의 글을 읽어보곤 합니다.

존경하올 주교님들, 예수님과 파티마의 성모님, 교부들과

"기도하라.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많은 희생을 바쳐라"

교회학자들처럼 지옥에 대한 강론을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도 구원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강론은 애덕의 위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네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거룩한 고백도 할 것입니다.

은총의 옷

사람들은 때때로 내게 "신부님, 스카풀라에 대해서는 왜 더 강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첫 영성체 때 갈색 스카풀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갈색 스카풀라를 축성하거나 목에 걸어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갈색 스카풀라가 오늘 날에 와서도 과거에 서처럼 과연 진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색 스카풀라는 지금도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토요일에 파티마에서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성모님은 갈색 스카풀라를 높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루시아 수녀님은 갈색 스카풀라와 묵주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제들은 갈색 스카풀라에 대하여 강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옥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강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갈색 스카풀라에 대하여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 강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갈색 스카풀라의 착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면 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혼들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 강론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제자들에게 신념을 가지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론 원고를 말하거나 읽는 것은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변절

7만 5천 명의 사제들이 사제직을 떠난 주요한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1) 매일 기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 2)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고, 조심성이 성인들의 도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3) 거룩하고 완전한 고백을 할 용기와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4) 대죄 중에 살면서도 계속 성무를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만일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미사를 집전하면 그는 미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면 그는 성체를 또다시 모독하는 것입니다. 대죄 중에 있는 사제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 강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제가 악령으로 찬다면 어떻게 강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이 성스러운 고해성사를 주게 되면 훌륭한 강론가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 할 것입니다.

어느날 아르스의 성 요한 비안네는 파리에서 온 젊은 사제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사제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를 만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성 요한 비안네는 "내게 고해성사를 받고 싶으면 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사제는 거룩한 성 요한 비안네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의자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성인들은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은 성인 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기도하라.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많은 희생을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매일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벼름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M**

(<http://cluster1.cafe.daum.net/&docid=에서 발췌>)



꿈속에서 받은 장미꽃 다섯 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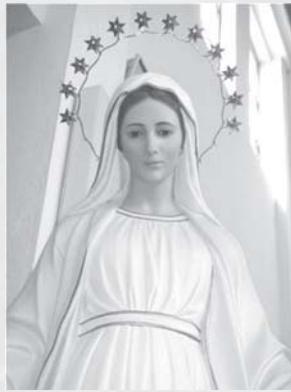
목용수 가브리엘 (마산교구 양덕동본당)

내 손에 들린 묵주를 한번 힐긋 보면서 피식 웃음을 짓는다. 2002년 5월 25일 세례를 받고 곧바로 레지오 마리애에 입단했다. 그런데 레지오 회합때 서서 바치는 묵주기도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가장 힘들었다. 거기다 매일 묵주기도 5단씩 바치고 까떼나를 바치라는데 정말 싫었다. 억지로 하루에 5단을 바치려 애를 써도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 어느 날 꿈에 파란 스웨터를 입은 여인이나에게 구슬을 주면서 열 개씩 실에다 꿰라고 했다. 구슬 열 개를 실에 다 꿰어서 그 여인에게 주자 구슬 열 개가 한 송이 장미꽃이 되었다. 그 여인은 계속 구슬을 꿰라고 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구슬인데 그 여인의 손에 가면 장미꽃이 되었다. 그리고 장미꽃 다섯 송이를 웃으며 나에게 주었다. 내가 받은 장미꽃은 장미꽃도 아니고 구슬도 아닌 묵주로 변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해서 묵주를 들고 유심히 보았다. 그붉고 예쁜 장미꽃이 파란 옥색 묵주가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생각해도 너무나 생생한 장면들이 실제 상황이었던 것 같았다. 난생처음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꾸고 아내에게 꿈이야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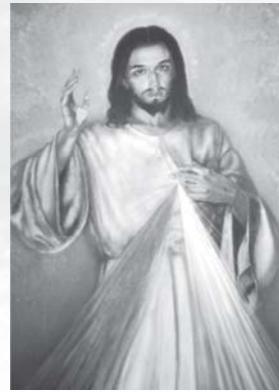
아내가 듣고는 그분은 성모님이고,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그렇게 성모님께는 장미꽃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 한다면서, 나의 꿈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아내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체험이라며 "당신이 하도 묵주기도 하기를 힘들어하니까 성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묵주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가르쳐 준 거네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묵주를 만들어 주는데 바로

꿈속에서 받았던 그 파란 옥색 묵주였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가게에는 아내가 스케치해서 가게 정면에 걸어 놓은 성모님과 예수님이 그림이 있다. 그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안으로 들이면서 힘들게 밀어 올리는데, 그 액자 속 성모님이 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계셨다. 그 무렵 작은 아들이 해군사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전투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학교의 배려로 몇 차례 수술과 병원 치료를 일 년간 했지만 끝내 자퇴를 하고 말았다. 그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묵주기도는 습관처럼 꾸준히 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해군 군함이 침몰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그 배에는 아들 동기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때서야 "정말 성모님이 돌보셨구나!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축복을 받아 전달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레지오 마리애 입단 당시는 그 묵주기도 때문에 레지오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성모님의 군사'라고 자칭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내 일상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힘들었던 묵주기도가 이제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잊고 잠시라도 안식과 휴식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어떤 처지에서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

「평화신문. 나의 묵주 이야기」 중에서…



“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
엠마오 길



2018년 8월 31일 (금) ~ 9월 3일(월) (3박 4일)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29~31)



강사 :

오세완 바오로 신부
오마하 한인 본당 부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킬린 텍사스 한인 본당 부임

강사 : 홍연수 마리아, 남홍의 그레고리오 • 성가찬미 : 전토마스 그룹

피정비 : \$330 | 준비물 : 성경, 묵주

장소 : Columban Fathers

1902 Calhoun St. Bellevue NE 68056 ☎ (402) 291-1902

문의 : ☎ 201-945-4777 / Cell : 917-626-4314

주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신청서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보낼 곳 |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2707



엠마오의 길 피정 신청서

성명: _____ 세례명: _____

E-mail : _____ Cell : _____

주소: _____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예에 발행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5. 메주고리예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6. 메주고리예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예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기도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발현 목격증인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후원안내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 카톡 평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주소 : _____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제 76호 발행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주, 강성임, 강신일, 강진호, 강하빈, 강인희, 권봉순, 권명옥, 권스테파노,
권금옥, 고제시카, 김건일, 김아네스, 김성숙, 김남윤, 김선기, 김송태, 김세록,
김엘리사벳, 김춘정, 김영옥, 김용만, 김연용, 김영건, 김숙정, 김문희, 김삼균,
김영숙, 김준일, 김미라, 김금성, 김우경, 김호용, 김정희, 김계중, 김숙자, 김대연,
김윤경, 김완수, 김미숙, 김현주, 김영준, 김미자, 김율리아나, 김영혜, 김선숙,
김인자, 노영란, 나웬디, 민헬레나, 문로사리아, 박선순, 박경희, 박취서, 박연진,
박영순, 박은순, 박민경, 박미숙, 배일령, 배정희, 신경자, 신미정, 신덕철, 신카타리나,
신경희, 서효심, 손해규, 안희숙, 유바울라, 윤금순, 위춘희, 안젤라, 임해숙, 양베로니카,
임성옥, 엄봉화, 한용수, 양세용, 양휘종, 최순임, 최미영, 이로사, 이승철, 이달식, 이숙희,
이규현, 이재선, 이마리아, 이갑희, 이하백, 이명자, 이분숙, 이명자, 이미경, 이마리아, 이글라라,
이명희, 이정옥, 이재문, 이주현, 이카타리나, 이크리스티나, 이찬기, 이해영, 이정옥&요셉, 이종천, 이순세,
이종명, 이상빈, 이정은, 이경애&이정구, 이데레사, 은희 캠퍼시, 원태분, 지영식, 지요경, 조은길, 조강호,
조민현, 진콘체사, 진은필, 전진심, 진도미니카, 전권호, 전문석, 전인숙, 장글라라, 장마리아, 최희자, 최스테파노,
차미카엘라, 정주화, 정민자, 장재욱, 정모니카, 정순희, 장루시아, 장송자, 정난주, 정마리아, 정재항, 최명수,
최수산나, 최선자, 최인순, 표한경, 홍희자, 항보영숙, 한경혜, 홍로사리아, 홍유리안나, 홍연수, 익명

Anna Cho, Chong S Arguello, Chang Theresa, Dong&Cheong Kim, Dorothy Fischer, Duke & Young Bahn,
Duk Chang, Gildland Jewelers, Hee soon Jung, Hae S Phillips, Hwang Kyu Hui, Han Y Patk, Henry Yerger,
Jeon Hyun Sook, Joung Lee, Joung Lee, July Kim, Jeannie Cunningham, Keun Ok Chang, Kim Heidi,
Kim Madera, Kyung Sup & Hyo Kyung Lim, Kim Madera, Kyoung Larcenaire, Mija A Bertke, Myung Hwa Jung,
Maria Song, Nguyen Oksoon, Oiga Orloff Barrus, Patricia Pouk, Peter Kilwhan Cha, Pupun Hodges,
Paul Myoung & Julia Myour, Patrician Cleaners, Ryun S Ahn, Ruthia Merbin, Serena J Lim, Sukle Leblanc,
Sue Darrington, Susanto Lani, Sang Goode, Soon Se Lee, Sang SNN Goode, Tae Nam Shin, Tnsuk Mullins,
Tae N Shin, Youn Y Yi, Yon Cha Shin,



주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돋기 위하여 제 손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발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제 발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목소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사랑이신 당신 말씀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기 위하여 제 목소리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모든 이를 예외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켈거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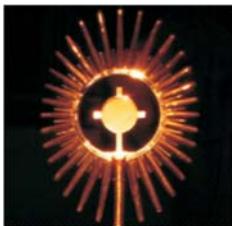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 HACKENSACK, NJ
PERMIT NO. 1015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2018년 가톨릭 성지순례



메주고리예, 슈르만치, 드브로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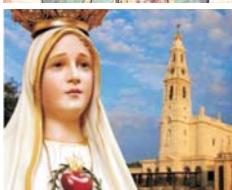
- ▶ 2018년 2월 27일 ~ 3월 7일 ▶ 5월 30일 ~ 6월 7일 (8박 9일)
- ▶ 순례비 \$850 + 항공료

▶ 상기일정은 항공권을 구입하여 선교회가 안내하는 순례에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 과달루페

- ▶ 2018년 2월 1일 ~ 5일 (4박 5일) ▶ JFK \$1390 / LAX \$1300



이스라엘, 파티마, 이태리 – 로마 – 바티칸

- ▶ 2018년 4월 9일 ~ 23일 (14박 15일) ▶ \$4,250 – JFK 출발



파티마, 루르드, 스페인, 이태리 – 아씨시, 시스틴 박물관

- ▶ 2018년 5월 20일 ~ 31일 (11박 12일) ▶ \$3,450 (워싱톤 (IAD) 공항출발)



제 29차 메주고리예 국제 청년 훼스티발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 ▶ 2018년 7월 28일 ~ 8월 7일 (11박 12일)



자비심의 파우스티나 성녀 – 폴란드, 메주고리예, 프라하, 크로아티아, 헝가리

- ▶ 2018년 8월 13일 ~ 25일 (12박 13일)

www.qpmm.org 자세한 성지순례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문의 T. 201-945-4777 C : 917-626-4314 E: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및 "평화의 모후" 소식지 무료보급 사명을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가톨릭 비영리 법인체입니다.